

##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의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 구성요소에 대한 재학생들의 평가

김성교\*·채정현\*\*

상도중학교\*·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

### Evaluation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by Students

Kim, Sung-Gyo\*·Chae, Jung-Hyun\*\*

*Sangdo Middle School\**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at contributing to the future develop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by suggesting basic data of TQM(Total Quality Management) for evaluating TQM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education colleges.

A survey was conducted involving all junior(3rd year) students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artment in education colleges either by making a visit to 3 different schools or by sending it in the mail to 10 different schools. Responding answer-sheets, 302 copies(88.3%) out of 342 copies in total were returned. Finally, we used 285 copies(83.3%) as data for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terms of Professional Qualif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ers, the students had passion for their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also had a great pride and mission to be future Home Economics teachers.

However, their ability proved to be poor and low in presenting a vision for Home Economics, in conduct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 computer skills. In the case of college students, their satisfaction showed an average point 3.15 on a scale of 5.

Those students who entered school voluntarily or those who hoped for re-entrance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those who entered school with good academic records or those who do not hope for re-entrance into school.

In terms of professors' leadership, Students are perceived to choose 'Transactional Leadership' instead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Students, who have higher satisfaction and hopes for re-entrance, perception level about their professors' leadership style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average.

The students empowerment level showed average point 3.52, which is considered relatively high. Students at the college where professors majored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re employed showed higher empowerment level than students at the college with professors who did not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The result of evaluating general demand for renovating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t. showed that: they perceived the "Teacher Education Course"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t. as in need of cultivating practical skills in secondary school. They also said, "Teaching Method" is in great need of renovation. In the case of teaching method, they preferred laboratory work, and practical training.

In earning credits, the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aithfully completing the "Study of Content". For the Subject Matter Education, they required a training course to be set up in the secondary school. Finally they claimed that the teachers and students need to take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a Curriculum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ept.

Based on the findings mentioned above, I would like to suggest further research on how to adopt and evaluate TQM in Home Economics Education, and faculty-centered evaluation methods. I also would like to suggest to vitalize quality research through the form of narrative research.

**Key Words:** 교사교육(Teacher Education), 총체적 질관리(TQM; Total Quality Management), 전문적 자질(Professional Qualification), 만족도(Satisfaction Level),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임파워먼트(Empowerment), 교육요구(Educational Demand)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 각국의 학교조직에서는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방식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TQM은 기존의 조직개혁과 행정관리 개선에 관한 이론과는 달리 조직 구성이나 관리 방법 같은 어느 한 부분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관리계층의 열의와 리더십을 기반으로 조직구성원의 사기 즉 임파워먼트를 높여서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질까지 총체적으로 관심을 갖는 관

리기법이다. 즉, TQM에서 'Total'이란 고객의 욕구를 식별하는 것에서부터 고객의 만족을 평가하는 데에 이르기 까지 업무의 모든 면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고객을 위하여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Quality'란 고객의 기대수준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충족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Management'란 업무(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직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을 뜻한다. 즉 교육과 서비스의 질을 고객의 입장에서 평가하고, 전반적인 과정에서 평가내용을 토대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질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원리이다. 이러한 TQM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정부조직이나

의료부문 뿐만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경영혁신을 위한 도구로 도입되고 있다(오세진, 1999).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수한 중등교사를 양성하고자 범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범대학에서 총체적 질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의 우수한 교사를 길러내기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연구를 통해서 제기되어 왔다(송광용 외, 1999; 이윤식, 1996; 강신복 외, 1993; 이지현, 1993). 이들 연구에서 지적한 사범대학의 문제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교과목 개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내용 및 방법, 교사교육자의 리더십 부족,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키기 위한 비전 미약, 교육 수요자의 요구 불응 등이다. 이러한 연구들이 비교적 오래전에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교과목 등 일부영역에 국한된 요구를 알아보는 연구이고 TQM의 하위요소인 리더십과 임파워먼트 등을 알아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교육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이는 기업경영에서와 같이 공급자 중심에서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교육체제를 전환하여 경영혁신과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는 기업에서 수요자인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도 교육활동의 고객인 학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궁극적으로는 실제로 졸업 후 일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여 학생을 배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민재형·이대선, 1997; Seymour, 1993). 이러한 점에서 대학교육에서도 기업경영에서와 같이 새로운 관리 방식을 채택하고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수요자 중심, 즉 학생 중심의 질 개념에 근거하여 학교조직의 체제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정일환, 2000; 노종희,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수요자인 재학생을 대상으로 TQM을 구성하는 요소인 전문적 자질, 만족도, 리더십, 임파워먼트, 일반적 교육요구를 통하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의 교사교육과정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결과는 가정과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의 TQM(총체적 질 관리)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2. 연구 내용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의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와 교사교육과정의 적절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2)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재학만족도는 어떠한가? 이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3)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가정과교사교육자(교수)에 대한 리더십 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4)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이 인식하는 임파워먼트 수준은 어떠한가? 이는 관련변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 (5)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의 가정과교사교육에 대한 교육요구는 어떠한가?

## II. 관련 문헌 고찰

### 1. TQM(Total Quality Management: 총체적 질 관리)의 구성요소

TQM의 하위 구성 요소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하는데 공통적인 하위요소는 우수한 품질정보 시스템, 구성원의 전문적 자질 함양, 수요자 중심의 욕구 충족, 경영자의 리더십, 임파워먼트, 지속적인 개선, 모든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있다.

첫 번째, 전문적 자질 개발은 조직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구성원의 지식, 기술, 의식, 신념까지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만족에 이르게 하는 TQM 요소이다.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 각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김인 외, 2001)는

의미에서 전문성 혹은 전문적 자질 개발은 TQM의 중요한 요소이다.

둘째, 수요자 중심은 TQM의 주요한 핵심요소로서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TQM의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교육에 있어서는 고객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 데 주요 고객은 대학 재학생이다.

세 번째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질을 확보하기 위해 지도자는 강력한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는 믿음에서 TQM의 성공적인 추진 전략에 있어 필수적 요소이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최고 경영자의 리더십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직무만족, 고객만족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옥수봉 외, 2002). 최근 미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경영자의 리더십을 TQM의 핵심요소로 들고 있다(Johnson, 1999; Juran, 1994; Garvin, 1988).

Bass(1985)는 조직에서 리더들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의 구성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요소로는 조건적 보상과 예외관리를 들고 있으며,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요소로는 카리스마, 개인적 배려, 지적자극, 선도적 추진성, 성과기대의 다섯 가지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성공적인 리더십 전략을 위해서 의사결정은 아주 주요한 요소로서 TQM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이 아닌 구성원에 대한 신뢰에 기초해서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부여가 주어져야 한다(문영은, 1992). 오늘날 대학의 교수집단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지시하고 복종하는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기 보다는 대등한 관계에서 학생을 섬기는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추세이다.

넷째로, 임파워먼트는 조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구성원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권한을 이양 받은 조직 구성원은 조직에 몰입하고 만족감을 경험하게 된다. 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이 전공교과를 공부하며 느끼는 만족감과 자긍심 등과 관련된다.

다섯 번째로, 지속적인 개선은 고객만족을 지향하는 TQM을 위한 또 다른 기본 요소이다. 질의 기본적 개념은 모든 것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선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모든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항구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고객의 요구와 산출물의 차이를 끊임없이 개선하려는 노력은 품질과 생산

성 개선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Bonstingl, 1992). 교육에서도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학생의 요구를 점검함으로써 교육조직의 개선을 꾀할 수 있다(Arcaro, 1995).

우리나라 대학의 TQM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박주현(2003)은 일반기업에서 시작된 TQM이 대학교육에 적용되기 위한 방안을 문헌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대학교육에 TQM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의 목적을 재검토할 것,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TQM요소의 수정 보완, 대학교육 품질 측정도구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오세진(1999)과 안영진(1999)의 연구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에 TQM이 도입되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대학 구성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변화를 요구한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서는 교수의 능동적이고 절대적인 지도력 하에서 교육내용과 방법을 모두 결정하고 학습자는 피동적으로 교수의 권위와 의견에 좌우되는 교수중심의 교수방법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대학교육 환경의 변화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수 상호간 협력에 의한 공동학습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학교육은 고객지향적인 욕구에 맞추기 보다는 하나의 표준화된 서비스로 제공되어 왔으며, 교육수요자보다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실시해 왔다. 대학교육이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 생산할 경우 고객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객의 불만족과 학습의욕 상실을 초래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따라서 대학 행정이나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수들은 고객들의 건설적인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주장하고 있다. TQM의 공통적인 구성요소로 비전 있는 리더십, 고객만족, 학습, 지속적인 개선을 들고 있다.

그 외 대학 내 도서관(옥수봉 외, 2002; 이상복, 2000)과 의학도서관에서의 TQM 적용에 관한 연구(김성희 외, 2005)에서, 도서관의 효율적 조직경영을 위한 방안으로서 TQM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학도서관의 질 향상 활동을 지속적으로 관리 개발함으로써 환자 치료와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에 실패를 거두고 있음에 비취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에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대학 경영 혁신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TQM은

교육수혜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리 방식이라고 인정받고 있다. 다시 말하면, TQM은 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교육적·경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지식 경쟁력' 시대에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 이에 미국 대학에서는 TQM을 대학경영에 도입하여 구조 개선은 물론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정일환, 2000; 안영진, 1999). 미국 캘리포니아 Polytechnic 주립대학은 1993년에 예산삭감과 지원학생 수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하자 TQM 전략을 도입하게 된다.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일상적인 업무가 개선되었고, 고객들의 만족도 증가, 운영비용 감소 등의 성과를 이뤘다.

이는 대학이 수요자의 요구에 근거를 두고, 이전의 공급자 중심의 질 개념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한다는 수요자 중심의 질 개념에 근거하여 조직의 체제와 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조직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범대학 가정과교사교육에 TQM을 적용한다면, 재학생과 더불어 졸업생인 현장의 가정과교사가 가정과교사교육의 일차적인 수요자이기 때문에 가정과교사교육의 질은 최고의 표준에 얼마나 도달했는가의 관점보다는 오히려 교육수요자들이 실제적인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했는가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의 가정과교사교육에서의 효과성과 질은 교육수요자의 능력과 적성을 최대한 발휘시키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교육기회를 교육수요자들에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중요한 대학 경영의 핵심 사고가 될 것이다(권동택, 2002).

## 2. 대학의 교사교육과 가정과교사교육

교사교육이란 궁극적으로 교사들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행동을 습득케 하여 전 생애 과정에 걸쳐 교직 사회에 잘 적응하고 발전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 또는 국가와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재능 있고 동기화된 교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유지하기 위한 과정 등으

로 정의된다(Doyle, 1990). 이렇게 정의된 교사교육은 예비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직전교육과 초임교사를 위한 입문교육, 현직 교사를 위한 재교육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등교사교육은 초등과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등학교 교사양성을 위한 직전교육은 국공사립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일부 교육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정영수, 2006; 박상완, 2000).

교사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사범대학의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며 교사교육의 역사나 미래 방향에 대한 것이 소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범대학의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크게 교사들의 성취도에 관한 것,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요구도, 교사교육과정개발로 나뉘어 이루어졌다. 우선 교사 성취도에 관한 연구는 손충기(2004), 차정호 외(2002), 김순애(1998)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 모두 교직적성, 교직관, 교수법, 생활 및 진로지도능력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 보았다. 연구결과 사범대학 교사교육과정을 통해서 교사들은 교직적성, 교직관, 교수법, 생활 및 진로지도능력이 보통수준 이하로 나타나 그 성취도가 낮음이 발견되었다.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및 요구도에 관한 연구는 유현숙(2002), 박덕규(1993), 박윤배(1992)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들 연구결과 교사들은 교사교육과정이 교직이론과목과 교과교육학 과목이 너무 이론중심이고 내용이 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지고 교수·학습방법이 획일적인데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교 교사들은 교양과 교직과목을, 고등학교 교사들은 교과내용 과목을 더 많이 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교사교육에 대해서 박미정(2006)은 가정과교육의 근본적인 변화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가정과교사 및 가정과교사교육과정의 변화를 주장하고 있다. 김유정(2004)은 효율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제 확립과 변화하는 교육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교육을 제안하고 있다. 전세경(2000)은 교사의 자질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가정교과에 대한 총론적인 이해 및 가정 교과에 대한 교재 연구와 교수법, 교육평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가정과 교과교육학 과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박명희(1995)는 교사자격증의 세분화로 전공과목 추가, 중고교 자격증 분리, 세분화된 전공과목을 2~3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의 교사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연숙(1994)은 교사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중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되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중등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이 대학의 교육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교사로서의 자질과 사명을 기르는 교과교육학 과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용진(1994)은 현장의 중등학교의 가정과목 지도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 있는지와 교과목 수와 단원빈도 등을 조사한 결과 가정교육과 교육과정은 중등 가정교과의 지도능력을 균형 있게 양성시킨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실기부분의 지도능력을 양성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III.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및 방법

조사대상자는 13개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전수 표집 하였다. 4학년의 경우 전공과목 이수완료로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임용고사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이 많은 관계로 표집하기에 부적절하였으므로, 나머지 학년 가운데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을 가장 많이 경험한 3학년으로 표집 하였다.

설문지는 2005년 9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학의 사범대 가정교육과를 통한 우편수집법과 직접방문을 통하여 수집하였다. 우편 수집한 학교(10개 대학)에 대해서는 가정교육과 조교에게 전화로 설문지의 취지를 설명한 후 3학년 학생들에게 답하게 하여 우편으로 회수하였고, 직접 방문의 경우는 연구자가 3개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답하게 하여 직접 회수하였다. 이렇게 하여 배부된 설문지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가 회수되었는데

무응답이 많거나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17부를 제외한 285부(83.3%)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재학생 대상자가 속해 있는 대학 소재지는 전라권 소재 대학이 33.7%로 가장 많았고, 경상권(22.8%), 수도권(20.4%), 강원권(16.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충청권이 6.7%로 가장 낮았다.

가정교육과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알아본 결과 성적에 맞추어 진학을 결정한 경우가 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본인의 의사로 진학하게 되었다는 경우가 40.4%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고, 주변의 권유로 진학을 하게 되었다(13.0%)와 기타(4.6%)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N	%
학교 소재지	수도권	58	20.4
	강원권	47	16.5
	충청권	19	6.7
	경상권	65	22.8
	전라권	96	33.7
	계	285	100
가정교육과 지원동기	본인의 의사	115	40.4
	주변의 권유	37	13.0
	성적에 맞추어서	120	42.1
	기타	13	4.6
	계	285	100

#### 2. 조사도구 및 자료 분석

설문지는 크게 네 영역으로 구성되었는데, 첫 번째 영역은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 및 적합도( $\alpha=.83$ )를, 재학만족도( $\alpha=.86$ )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 영역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자의 리더십 인식( $\alpha=.84$ ), 세 번째 영역은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alpha=.86$ ), 마지막 영역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교육 요구 및 일반적 사항이었다.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 및 적합도는 5점 likert 척도(5점 만점으로 수치가 클수록 성취수준이 높음)로 구성하였다.

사전 조사는 본 조사에 앞서 설문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2005년 9월 18일부터 9월 24일까지 16명의 가정교육과 재학생에게 실시되었으며, 사전 조사 결과 나온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에 사용할 조사도구를 완성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0에서 .89까지로 높게 나타났다.

자료 분석은 연구내용에 따라 평균(M)과 표준편차(SD), 빈도, 백분율, 요인분석, t검정, 분산분석, Duncun 사후검정 등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성취하게 된 현장가정과 교사로서 근무하는데 필요한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듯이,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의 다섯 하위영역 평균은 3.26으로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사 전문적 자질 다섯 영역 가운데 교과신념(3.40)의 성취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도덕성(3.26)이며, 교과지식(3.21)과 지도능력(3.21)은 성취도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활용능력(3.10)은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였다.

각 영역별 하위요소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인 전문적 자질로서 먼저, 교과지식의 경우에는 대학의 가정교육과정이 ‘중등의 가정교과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내용 지식이다’(3.41)와 ‘가정과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지식을 함양해 주었다’(3.40)가 높게 나타났다. 지도능력의 경우, ‘가정교과 철학에 입각한 가정교과 지도능력을 배양해 주었다’(3.42)가 가장 높았으며, 교과신념에서는 ‘가정과교육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다’(3.60),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3.55), ‘가정과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하였다’(3.54)가 높게 나타났다. 도덕성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을 배웠다’(3.49)가 가장 높았다.

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 31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취도를 보인 문항은 ‘가정과교육에 대한 열정을 심어주었다’(3.60)이며, 그 다음이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를 느끼게 해 주었다’(3.55)와 ‘가정과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갖게

<표 2> 가정과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

(N=285)

전문적 자질 문항		M(SD)	소계
교과지식	가정교과를 가르치기에 적합한 내용지식	3.41(.89)	3.21(.61)
	가정과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지식	3.40(.85)	
	가정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실기관련 지식	3.21(.90)	
	체계적인 수업계획을 위한 지식	3.25(.82)	
	학습내용에 알맞은 다양한 교수법 관련 지식	3.15(.86)	
	과제별로 적합한 평가방법 관련 지식	3.08(.84)	
	가정교과관련 개발활동 지도를 위한 내용지식	2.97(.90)	
지도능력	학습자의 발달단계별 지도능력	3.19(.83)	3.21(.65)
	가정교과 철학에 입각한 가정교과 지도능력	3.42(.89)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상담 지도능력	3.22(.95)	
	학급 경영을 위한 지도능력	3.09(.89)	
	학생생활 지도능력	3.25(.89)	
	사회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지도능력	3.19(.90)	
학습자의 동기유발을 위한 지도능력	3.13(.89)		

<표 계속>

구분	전문적 자질 문항	M(SD)	소계
활용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3.01(.93)	3.10(.66)
	학생과 상호작용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3.19(.89)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교과내용 재구성 능력	3.02(.91)	
	학습자 동기유발을 위한 정보 활용 능력	3.16(.84)	
	교육이론의 현장 적용 능력	3.12(.86)	
교과신념	가정교과에 대한 정체성	3.26(.87)	3.40(.66)
	가정과교육의 미래 비전	2.90(.95)	
	가정과교육의 사회에 대한 기여도	3.46(.95)	
	가정과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3.52(.89)	
	가정과교사로서의 사명감	3.54(.99)	
	가정과교육에 대한 열정	3.60(1.0)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	3.55(.97)	
	가정과교육을 통한 정의사회실현에 대한 신념	3.39(1.0)	
도덕성	학생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	3.36(.89)	3.36(.72)
	가정과교사로서의 교직윤리	3.44(.91)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과 배려	3.15(1.0)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기본예절	3.49(.93)	
전 체		3.26(.56)	

하였다'(3.54), '가정과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을 알게 되었다'(3.5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성취도를 보인 문항은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2.90)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계발활동 지도를 위한 내용지식을 배웠다'(2.97)와 '컴퓨터 활용 능력을 함양하였다'(3.01)의 순으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들 자질 성취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범대학의 교육이 전공위주의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 인간관계를 위한 기술 등 다양한 교양교육이 병행되어야 하고, 전공 교과지식보다는 중등학교 학생들의 인성, 특기, 적성개발을 위한 계발활동 지도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는 선행 연구결과(장한기 외, 2001)와도 일치하고 있다.

## 2. 가정교육과 재학생으로서의 만족도

### 1) 재학 만족도

가정교육과 재학생으로서의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섯 가지 질문을 한 결과 다음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표 3>에 나타났듯이, 재학생은 '대학생활에 만족한다'(3.29)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전공공부에 열정을 쏟는다'(3.27)이며 '가정교육과 공부를 많이 좋아한다'(3.26)와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3.2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공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2.69)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다섯 문항의 만족도는 2.69~3.29이고 전체 만족도는 3.15로 중간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 문항의 빈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생활에 만족한다' 문항에 '보통이다'(42.5%)가 과반수 가깝게 나타났고, 41.4%가 만족(34.7%)내지 매우 만족(6.7%), 15.9%가 만족하지 않거나(12.0%) 매우 만족하지 않는(3.9%)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공부에 열정을 쏟는다'의 문항에는 '보통이다'(43.2%), 40.3%가 열정을 쏟음(33.3%) 내지 매우 열정을 쏟음(7.0%), 16.5%는 열정을 쏟지 않거나(12.3%) 전혀 열정을 쏟지 않는(4.2%)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교육과 공부를 많이 좋아한다' 문항에 '보통이다'(39.1%), 42%가 많이 좋아함(33.5%) 내지 매우 많이 좋아함(8.5%), 19%가 좋아하지 않



〈표 3〉 가정교육과 재학생으로서의 만족도

분 야	N(%)					M (SD)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대학생활에 만족 한다	11 (3.9)	34 (12.0)	121 (42.5)	99 (34.7)	19 (6.7)	3.29 (.90)
전공공부에 열정을 쏟는다	12 (4.2)	35 (12.3)	123 (43.2)	95 (33.3)	20 (7.0)	3.27 (.92)
가정교육과 공부를 많이 좋아 한다	14 (4.9)	40 (14.1)	111 (39.1)	95 (33.5)	24 (8.5)	3.26 (.97)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	14 (4.9)	34 (11.9)	132 (46.3)	78 (27.4)	27 (9.5)	3.25 (.96)
전공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24 (8.5)	100 (35.2)	114 (40.1)	32 (11.3)	14 (4.9)	2.69 (.95)
합 계						3.15 (.77)

거나(14.1%) 매우 좋아하지 않는 것(4.9%)으로 나타났다.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문항에는 '보통이다'(46.3%)와 '그렇다'(27.4%)의 순으로 나타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였고 '전혀 그렇지 않다'(4.9%)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전공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의 문항에는 '보통이다'(40.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6.2%가 그렇다(11.3%)내지 매우 그렇다(4.9%), 43.7%는 그렇지 않다(35.2%)내지 전혀 그렇지 않다(8.5%)로 나타났다. 즉 과반 수 이상의 학생이 전공공부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아, 가정교육과 재학생은 대학생활에 만족하는 편이고, 가정교육과 공부를 좋아하며 전공공부에 열정을 쏟으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편이나 전공공부를 하는 시간에 그다지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 있다.

2)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여부에 따른 재학만족도 차이

가정교육과에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여부에 따라 재학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처럼, 가정교육 전공 재직 여부에 따른 집단 간 재학 만족도 가운데 '가정교육 공부에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는 문항과 '가정교육 공부를 하는 동안 열정을 쏟는다'의 두 개 문항에서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 재학생 집단이 재직하고 있지 않은 학교 재학생 집단보다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학생활 만족도와 가정교육 공부를 좋아함, 전공공부에 많은 시간 투자함의 세 문항에서는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 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교과교육학 과목을 통하여 가정교육에 대한 교과신념을 강조할 기회를 많이 가지고

〈표 4〉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여부에 따른 재학만족도

변 인	N	재학 만족도					전 체
		대학생활	가정교육열정	좋아함	기쁨과보람	시간투자	
재직함	88	3.36(.88)	3.44(.96)	3.33(1.04)	3.51(.91)	2.68(1.01)	3.26(.82)
재직 않음	196	3.26(.91)	3.10(.89)	3.24(.95)	3.15(.96)	2.69(.93)	3.09(.75)
t값		.84	1.92*	.72	2.79**	-.11	1.49

\*p<.05, \*\*p<.01

M(SD)

〈표 5〉 재학생 특성에 따른 재학만족도 차이

M(SD)

변인	N	재학 만족도					전체	
		대학생활	좋아함	시간투자	기쁨과보람	가정교육열정		
지원 동기	본인의사	115	3.46(.88) a	3.63( .89) a	2.97( .90) a	3.53( .88) a	3.51( .84) a	3.42(.71) a
	주변권유	37	3.41(.87) a	3.11(1.02) b	2.73(1.04) ab	3.22(1.03) b	3.16(1.01) b	3.12(.78) b
	성적	119	3.17(.86) b	3.03( .90) b	2.45( .88) b	3.03( .90) b	3.13( .85) b	2.96(.70) b
	F값		3.51*	13.95***	9.53***	8.83***	6.11**	12.18***
재입학 희망	희망함	90	3.58(.94) a	3.73( .86) a	3.05( .90) a	3.70( .92) a	3.65( .87) a	3.55(.74) a
	희망 않음	79	3.04(.93) c	2.96( .99) b	2.48( .93) b	2.80( .92) c	2.99( .93) b	2.85(.75) c
	잘 모름	114	3.28(.68) b	3.11( .78) b	2.62( .82) b	3.15( .74) b	3.17( .69) b	3.06(.53) b
	F값		8.43***	17.57***	8.88***	21.71***	13.50***	22.20***

\* p<.05, \*\*p<.01, \*\*\*p<.001

학생들에게 주지시킨 결과라 여겨진다.

3) 재학생 특성에 따른 재학만족도 차이

가정교육과 지원동기와 재입학 희망에 따라 재학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듯이, 재학만족도와 각 하위문항은 가정교육과

지원 동기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인 의사로 입학하게 된 집단이 주변권유나 성적에 의해 지원한 집단보다 재학만족도가 유의하게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주변권유로 입학하게 된 경우가 본인의사로 입학하게 된 경우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고, 성적에 의해 입학하게 된 집단이 가장 낮은 재학 만족도를 보였다.

또한 재입학 희망 여부에 따른 재학만족도에 있어서는

〈표 6〉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 인식수준

(N=285)

리더십 하위문항		M(SD)	소계
조건적 보상	근면성실한 학생에게 보상의 의미로 많은 도움을 준다.	3.20(.99)	3.33 (.73)
	노력의 대가를 바란다면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	3.20(.92)	
	학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싶을 때 응해준다.	3.34(.93)	
예외 관리	기대가 충족되면 그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다.	3.59(.87)	2.88 (.57)
	문제가 심각해 질 때까지 간섭하지 않는다.	2.98(.89)	
	학생들의 모든 실수를 기억하는 편이다.	3.13(.91)	
	학생들이 꼭 필요할 때 도움을 주지 못한다.	3.05(.90)	
	불규칙한 것, 오류, 예외적인 것에 관심이 많다.	3.02(.85)	
	논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2.82(.88)	
	문제가 악화된 후에 행동을 취하는 편이다.	2.81(.89)	
	일이 잘못되지 않는 한 그대로 두는 편이다.	2.83(.94)	
	의사결정 하는 것을 피하는 편이다.	2.55(.95)	
긴급한 질문에 대한 대처가 느린 편이다.	2.56(.95)		
예기치 못한 실수, 실패를 수정하는데 모든 관심을 기울인다		3.02(.87)	
전체		3.01(.51)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다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재입학을 희망하는 집단이 재학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잘 모른다는 집단,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집단이 유의하게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재학만족도와 각 하위문항에 있어서도,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와 교사교육과정의 적절성 인식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본인의사로 가정교육과를 지원하게 되었거나 재입학을 희망하는 집단이 각각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구별되었다.

### 3.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을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대해 알아본 후, 재학생 특성에 따른 리더십 인식 차이를 알아보았다.

#### 1)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 인식수준

재학생이 인식하는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 인식 수준을 알아본 결과는 <표 6>에서 보듯이,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영역인 조건적 보상(3.33)이 예외 관리(2.88)보다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 14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문항은 ‘기대가 충족되면 만족감을 표현한다’(3.58)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학습 상의 이유로 의논을 하고 싶을 때 응해준다’(3.34), ‘근면 성실한 학생에게 보상의 의미로 많은 도움을 준다’와 ‘노력의 대가를 바라다면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제시한다’(3.20)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인식수준을 보인 리더십 문항은 ‘의사결정을 피하는 편이다’(2.5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긴급한 질문에 대한 대처가 느린 편이다’(2.56)로 나타났다.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의 인식을 볼 때, 대체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조건적 보상이고 낮은 수준을 보인 항목은 예외관리로써, 재학생은 가정교사교육자가 소극적 자세의 사후처방적 리더십을 가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한 조건적 보상에 대한 인식 수준

이 높다는 것은 교사교육자가 학생들에 대하여 기대가 충족되었을 때 만족감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화나 보상이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학업성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남미숙, 2005)와 결부시켜 볼 때 바람직한 리더십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강화는 학생이나 집단에 따라 달라야하고 학생의 특성이나 집단의 성격에 따라 적합하여야 하며 강화물은 학생들의 지적·사회적 성숙 수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리라 본다.

#### 2)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수준

재학생이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하여 인식하는 변혁적 리더십 인식수준을 다섯 하위영역에서 알아본 결과는 <표 7>에서 나타났듯이, 변혁적 리더십의 다섯 가지 하위영역 가운데 선도적 추진성(3.36)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카리스마(3.34), 성과 기대(3.30), 지적 자극(3.20)의 순으로 나타났고 개인적 배려(3.12)를 가장 낮게 인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 전체 34문항 가운데에서 가장 높은 인식수준을 보인 리더십 문항은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도록 행동한다’(3.6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자신과 제자로 인연 맺어 교육받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도록 교육한다’(3.59)로 나타났다. ‘책임감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3.57)를 세 번째로 높게 인식하였다. 그 외 3.4이상의 비교적 높은 인식수준을 보인 문항으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자주 들려준다’(3.49),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3.48), ‘스스로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다’(3.43), ‘미래 지향적 차원에서 교육 목표를 설정하려고 한다’(3.43), ‘학생을 학과의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한다’(3.40) 등이 있다.

재학생들이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하여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 문항은 ‘소외된 듯한 학생에게 신경을 더 써 주신다’(2.73)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자신의 이익보다 학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2.98),

〈표 7〉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수준

(N=283)

리더십 하위문항		M(SD)	소계
카 리 스 마	학생들에게 존경받도록 행동한다.	3.63(.77)	3.34 (.66)
	가정교육의 강력한 미래비전을 제시한다.	3.36(.93)	
	당신의 제자로 교육받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도록 교육한다.	3.59(.90)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보여준다.	3.39(.95)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나 신념을 자주 들려준다.	3.49(.92)	
	새로운 교육이론, 교수법,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한다.	3.20(.96)	
	의사결정에서 도덕적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3.23(.82)	
	새로운 사고방식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인다.	3.20(.95)	
	자신의 이익보다 학과의 이익을 우선시 하는 편이다	2.98(.95)	
개 인 적 배 려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3.48(.86)	3.12 (.74)
	학생들의 장점을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3.08(.95)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다.	2.98(1.0)	
	학생을 학과 구성원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취급한다.	3.40(.94)	
	학생과 개별적으로 만나 고민을 들어주며 조언한다.	3.01(1.1)	
	학생의 능력을 인정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3.04(.95)	
	학생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34(.85)	
	학생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시키고자 노력한다.	2.98(.96)	
	학생을 자신과 동등한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소외된 듯한 학생에게 신경을 더 써주신다.	3.15(.98) 2.73(1.0)	
지 적 자 극	문제해결에 있어 다양한 관점을 가지도록 돕는다.	3.19(.91)	3.20 (.77)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돕는다.	3.21(.95)	
	역할수행을 하는데 있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준다.	3.22(.85)	
	오래된 역할수행 방식을 재고하도록 격려, 자극한다.	3.17(.87)	
선 도 적 추 진 성	스스로 열심히 역할을 수행하여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인다.	3.43(.95)	3.36 (.71)
	새로운 문제를 솔루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한다.	3.25(.91)	
	책임감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한다.	3.57(.86)	
	창의성과 독창성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편이다.	3.23(.91)	
	긴급 상황이나 혼란에 처해도 어려움 없이 일을 수행한다. 학과의 의사결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3.34(.84) 3.29(.95)	
성 과 기 대	평균이상의 학습 성취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3.31(.89)	
	자아실현 욕구를 발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한다.	3.26(.92)	
	모든 면에 최고이기보다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한다.	3.34(1.0)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교육목표를 설정하려고 한다.	3.43(.88)	
	학생들에게 개인목표를 설정하게 하고 평가과정에 참여시킨다.	3.14(.98)	
전 체		3.25(.66)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다지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대체로 그렇다. 5=매우 그렇다.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이다’(2.98), ‘학생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자 노력한다’(2.98)의 세 문항이

같은 인식수준을 보였다. 결국 소외된 학생에게 신경을 써 준다는 문항을 제외하면 모두 3점에 가까워 재학생들

의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수준은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인적 배려 영역의 열 개 하위문항은 3.48~2.73의 인식수준을 보여 문항 간 인식차이가 크을 알 수 있고, 지적자극 영역은 네 문항 간 인식차이가 거의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은 가정교사교육자를 카리스마를 지니고 선도적 추진력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하며, 여전히 교수를 대하기 어려운 상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소외된 학생에게 보다는 학업 성취 등에서 뛰어난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관심을 표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학생의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거래적 리더십 인식 수준(3.01)과 비교해 볼 때 변혁적 리더십(3.25)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인 거래

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이 종업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와 비교해 볼 때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3) 재학생의 특성에 따른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차이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특성에 따른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재학생의 지원동기에 따른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을 살펴보면, 지원동기에 따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영역 중 선도적 추진성과 성과 기대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본인의사와 주변 권유에 의해 입학한 집단이 성적에 의해 입학하게 된 집

<표 8> 재학생의 특성에 따른 가정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변인 N			가정교사교육자의 리더십									M(SD)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조건보상	예외관리	전체	카리스마	개인배려	지적자극	선도추진	성과기대	전체	
지원	본인 의사	115	3.42 (.73)	2.86 (.61)	3.02 (.54)	3.40 (.66)	3.21 (.78)	3.32 (.77)	3.48 (.70) a	3.41 (.73) a	3.36 (.66)	
	주변 권유	37	3.33 (.81)	3.07 (.57)	3.13 (.46)	3.27 (.74)	3.19 (.73)	3.14 (.79)	3.31 (.82) ab	3.37 (.75) a	3.25 (.71)	
동기	성적	119	3.27 (.71)	2.87 (.53)	2.98 (.48)	3.33 (.66)	3.04 (.71)	3.13 (.76)	3.28 (.68) b	3.20 (.78) b	3.19 (.65)	
	F값		1.18	2.01	1.15	.71	1.67	2.05	2.52 *	2.41 *	1.79	
재학만족도	만족 않음	44	2.93 (.57) b	2.86 (.46)	2.88 (.38)	2.85 (.63) c	2.56 (.63) c	2.67 (.69) c	2.95 (.70) c	2.72 (.67) b	2.69 (.54) c	
	보통	142	3.30 (.63) a	2.96 (.55)	3.05 (.49)	3.30 (.61) b	3.08 (.63) b	3.17 (.67) b	3.32 (.62) b	3.30 (.64) a	3.22 (.56) b	
	만족함	85	3.51 (.80) a	2.80 (.62)	3.00 (.55)	3.55 (.62) a	3.37 (.77) a	3.42 (.79) a	3.54 (.73) a	3.50 (.78) a	3.48 (.67) a	
	F값		11.10***	2.30	1.84	20.70***	22.17***	17.64***	12.47***	19.42***	25.64***	
재입학희망	희망함	90	3.48 (.81) a	2.87 (.65)	3.04 (.60)	3.46 (.68) a	3.29 (.80) a	3.34 (.85) a	3.48 (.79) a	3.47 (.80) a	3.41 (.72) a	
	희망 않음	79	3.05 (.71) b	2.96 (.58)	2.99 (.51)	3.11 (.66) b	2.86 (.72) b	2.93 (.70) b	3.10 (.70) b	3.00 (.75) b	2.98 (.64) b	
	잘 모름	114	3.39 (.61) a	2.85 (.49)	3.00 (.43)	3.38 (.59) a	3.15 (.64) a	3.24 (.68) a	3.41 (.58) a	3.35 (.64) a	3.30 (.54) a	
	F값		8.42***	1.03	.293	6.70**	7.77**	7.15**	7.39**	9.33***	9.78***	

\* p<.05, \*\*p<.01, \*\*\*p<.001

단보다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하여 선도적 추진성과 성과 기대를 높게 인식하였다.

재학만족도에 따른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에 있어서는,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영역인 조건적 보상과 변혁적 리더십의 모든 하위 영역에서 만족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만족하지 않는 집단보다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재학생의 재입학 희망 여부에 따른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수준의 경우, 재입학 희망 여부에 따라 거래적 리더십의 조건적 보상과 변혁적 리더십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모두 재입학을 희망하거나 잘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이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집단 보다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을 유의하게 높게 인식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정교육과 지원동기가 본인의사에 의한 경우일 때, 주변권유나 성적에 의해 입학하게 된 경우보다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 교육과정의 적절성 인식, 재학만족도, 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정교육과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희망하지 않거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집단보다 교사 전문적 자질 성취도, 교육과정의 적절성 인식, 재학만족도,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 등이 높았다.

#### 4.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알아보고, 관련 변수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임파워먼트 수준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의 네 영역에서 알아본 결과 <표 9>에서 보듯이, 임파워먼트 네 하위영역 가운데 의미성(3.46)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능력(3.43), 자기 결정력(3.38)의 순인데 비해 영향력(2.94) 수준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임파워먼트 네 하위 영역 수준은 2.94~3.46이고 재학생의 전체 임파워먼트 수준은 3.30으로 중간보다 높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파워먼트 하위영역 전체 12문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문항은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나의 역할은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3.69)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자신이 있다’(3.53)이다.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문항은 ‘가정교육과의 다양한 행사 진행에

<표 9> 임파워먼트 수준

변인	하 위 문 항	M(SD)	소 계
의 미 성	가정교육과 학생으로 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3.26(.89)	3.46 (.78)
	가정교육과 학생으로 나의 역할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3.43(.92)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나의 역할을 나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3.69(.94)	
능 령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자신이 있다.	3.53(.91)	3.43 (.74)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의 역할수행 능력에 스스로 만족한다.	3.29(.88)	
	가정교육과 학생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3.47(.80)	
자 기 결 정 력	학업이나 학과의 일을 하는데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3.37(.85)	3.38 (.71)
	학업이나 학과의 일을 스스로 결정한다.	3.41(.79)	
	학업이나 학과의 일을 하는 데 독립성을 가진다.	3.34(.74)	
영 향 력	가정교육과 동기들 사이에 나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3.07(.87)	2.94 (.84)
	동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큰 통제력을 가진다.	2.88(.90)	
	가정교육과의 다양한 행사진행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2.86(.98)	
전 체		3.30(.63)	

**<표 10>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여부에 따른 임파워먼트**

M(SD)

변 인	N	임파워먼트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전 체
재직함	87	3.59(.79)	3.52(.80)	3.55(.63)	3.17(.75)	3.46(.58)
재직하지 않음	196	3.31(.78)	3.40(.72)	3.31(.73)	2.86(.85)	3.21(.64)
t값		1.67*	1.20	2.50*	2.86**	2.55*

\*p<.05, \*\*p<.01

큰 영향력을 지닌다'(2.86)이고, 그 다음이 '같은 과 동  
기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큰 통제력을 가진  
다'(2.8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등학교 현장 가정과교사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윤리성과 자율성은 높으나, 사회적 참여와 영향력  
은 낮게 나타난 연구결과(박미정, 2006)와 일맥상통한 것  
으로 보인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변혁적 리더십을 들고 있는데(하용규 외,  
2005; 이용탁, 2004), 3학년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중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이들이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변혁적 리더십 인식 수준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력 수준이  
높다는 연구(이현주, 2002)결과에 의거한다면, 가정교육과  
에서는 실천비판 과학적 관점에서 가정과교육을 새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좀 더 임파워된 예비 가정과교사 양성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 여부에 따른 임파워먼트

가정교육 전공교수 재직 여부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  
을 알아본 결과 <표 10>에서 보듯이, 가정교육 전공교수  
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재직하고 있지 않은 대학 간에  
재학생 임파워먼트 수준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영역 가운데  
능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 즉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  
재학생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그렇지 않은 대학 재학생  
들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과교육 전공교수  
가 가정교육에 대한 정체성과 교과신념 등 교과철학을 확  
고하게 주지시킨 영향일 수 있을 것이다.

3) 재학생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차이

가정교육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재입학 희망여부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을 알아본 결과 <표 11>에서처럼,

**<표 11> 재학생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

M(SD)

변 인	N	임파워먼트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	전 체	
가정교육과 지원동기	본인 의사	114	3.63(.69) a	3.59(.69) a	3.48(.64)	2.99(.83)	3.42(.57) a
	주변 권유	37	3.51(.80) ab	3.50(.71) a	3.36(.80)	3.05(.82)	3.36(.65) ab
	성 적	120	3.32(.79) b	3.29(.72) b	3.34(.73)	2.88(.86)	3.21(.63) b
	F값		5.37**	5.28**	1.13	.76	3.68*
가정교육과 재입학 희 망	희망함	91	3.79(.70) a	3.70(.73) a	3.60(.73) a	3.11(.88) a	3.55(.62) a
	희망없음	78	3.11(.84) c	3.15(.73) c	3.15(.75) c	2.75(.87) c	3.04(.66) c
	잘 모름	113	3.41(.68) b	3.38(.67) b	3.33(.60) b	2.91(.73) b	3.26(.51) b
	F값		12.50***	10.35***	7.22***	3.17*	3.85***

\*p<.05, \*\*p<.01, \*\*\*p<.001

〈표 12〉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 야	N(%)
가정교과사로서 중등 현장에 필요한 실무능력 교육	126(44.4)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수단으로서, 경험을 강조한 교육실습교육	77(27.1)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지도자 교육	44(15.5)
가정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적 지식배양 교육	37(13.0)
합 계	284(100)

먼저 가정교육과 지원동기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에 있어서는, 하위영역 가운데 의미성, 능력, 전체 임파워먼트 수준에서 본인의의사와 주변의 권유로 지원하게 된 집단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성적으로 지원하게 된 집단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성적으로 지원하게 된 경우 의미성, 능력, 전체 임파워먼트 수준이 가장 낮았다. 이는 긍정적인 자세로 자신의 업무에 적극적인 사람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다음으로 가정교육과 재입학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따른 임파워먼트 수준은 임파워먼트의 하위영역 전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정교육과에 재입학을 희망하는 집단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하게 가장 높았으며, 잘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이 그 다음으로 높았고 가정교육과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한 집단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이는 집단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때 소속원의 임파워먼트 수준이 향상된다는 선행 연구결과(하용규 외, 2005; 류윤석, 2005; 이용탁, 2004; 이규선, 2003; 박성배, 2002)와도 일치한다.

하는 바를 알아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은 중등학교 현장에서 가정교과사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실무능력 교육과정이어야 한다는 즉, ‘실제적 관점’을 주장한 응답(44.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수단으로써 경험을 강조한 교육실습교육이어야 한다는 ‘기술적 관점’을 지지하는 응답(27.1%)이 차지하여 두 관점이 7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사회문제를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시민교육을 시킬 능력이 있는 지도자 교육이어야 한다는 ‘비판적/사회적 관점’(15.5%)이 차지하였고,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인 관점은 가정교육 전반에 걸친 학문적 지식배양 교육 즉 ‘학문적 관점’(13.0%)이었다.

재학생이 희망하는 요구와는 달리 오늘날 실제적인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은 대부분이 학문적 관점을 지향하며, 가정교육의 학문적 성격을 강조하여 이론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가정교육과 편성분석을 통하여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사범대학 무용론이니 대학의 교사교육과정이 현장의 교직 수행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6.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에 대한 교육요구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재학생의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기대

2)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요구

가정교육과 재학생들에게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의 다양한 분야 가운데 미래지향적인 교사교육과정을 위하여 가장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무엇인지를 두개씩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서 <표 13>에서 제시된 것처럼, 재학생들의 반 정도가 교수방법(48,2%)과 교육과정 편성(42.2%)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재학생의 삼분지 일 정도(33.9%)가 실기지도법과 교육실습체제의 개혁



을 요구하였다. 그 외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 정립(24.7%)과 교수 1인당 학생 수의 감소(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재학생의 교사교육과정에 대한 개혁요구

분 야	N(%)
교수방법	137(48.2)
교육과정 편성	120(42.2)
실기 지도 방법	96(33.9)
교육실습 체제	96(33.9)
가정교육에 대한 철학 정립	78(27.4)
교수 1인당 학생 수	41(14.4)

복수(두개) 응답.

3) 기억에 남는 교수법

재학생들이 지금까지 가정교육과에서 수강한 다양한 교과목의 교수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수법을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표 14〉 기억에 남는 교수법

분 야	N(%)
실험·실습	200(70.2)
강의·강연	82(28.8)
사례 발표	79(27.7)
토의·토론	70(24.6)
견학·시찰	67(23.5)
연구수업 참관	47(16.5)
개인 연구	20( 7.0)
기 타	5( 1.8)

복수(두개) 응답.

실험·실습이 70.2%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강의·강연(28.8%)과 사례 발표(27.7%)가 비슷한 수준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개인연구는 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4) 재학생의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한 요구

가정교육과의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한 재학생들의 개혁요구를 알아본 결과는 <표 15>와 같다. <표 15>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재학생들은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한 개혁요구에서 교과내용학에 대한 이수 학점수를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9.1%), 이때 부족한 교과교육학 분야는 현장에 임용되어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교과내용학의 이수 범위를 중등학교 현장의 가정교과 범위에 맞추어 축소하여야 한다(38.9%)는 것이고, 그 다음이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과목의 통합(33.0%)과 교과교육학의 충실 이수 후에 현장에서 교과내용학 영역을 보완할 수 있는 연수과정을 이수토록 한다(33.0%)가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현 체제에 맞추어 이수 후 현장에서 자기개발 노력으로 보완한다(24.2%)와 부족한 학점으로 인한 결손은 대학원 진학을 통하여 교과 전문성 향상을 꾀하여야 한다(21.8%)는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였고, 특히 대학원 진학의 보편타당성에 대한 의지는 약하게 나타났다.

5) 가정교육과 교육과정개발 주체에 대한 개혁요구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 개발에 현재에는 누가

〈표 15〉 학점 이수 방식에 대한 요구

분 야	N(%)
교과내용학의 충실 이수 후 현장에서 교과교육학 보완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140(49.1)
교과내용학 과목을 중등교과 내용에 맞추어 범위를 축소	111(38.9)
교과교육학과 교과내용학 과목의 통합	94(33.0)
교과교육학의 충실 이수 후 현장에서 교과내용학 보완을 위한 연수과정 이수	94(33.0)
현 체제에 맞추어 이수 후 현장에서 자기개발 노력으로 보완	69(24.2)
대학원 진학을 통한 교과 전문성 향상	62(21.8)

복수(두개) 응답.

주체가 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을 위해 앞으로 누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를 재학생들에게 알아본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현재의 주체는 교육전문가(28.4%)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이 교육부 상급 관리자(24.2%)이고 그 다음을 대학의 가정교육과 교수(22.8%)가 차지했다. 현장의 가정과교사(13.7%)와 가정교육과 재학생(6.7%)이 그 다음 순서로 나타났으며 교육단체(2.5%)와 학부모(1.1%)도 소수의견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미래지향적인 가정교육과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누가 주체가 되어야만 하는가의 희망을 조사한 결과, 현장의 가정과교사(41.2%)가 절반 가까운 비율을 보여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육과 재학생(28.5%)이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가정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의 교육전문가(14.4%)와 대학의 교수(9.5%)가 그 다음을 차지하였는데, 전문가적 입장보다는 실제적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희망하는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가정교육과의 교육과정 편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대학교육과정은 전통적으로 대학 교수들의 전유물이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대학 교육이 생겨난 이래 수세기 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대학 교육과정이 사회의 발전에 비견될 만큼 유연하게 변화되기가 어려운 것도 바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주체가 교수 자신이기 때문이다. 학과가 생기고 학문적 전통이 생겨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운영의 보수성은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또 한편 사회발전에 대한 예견력과 선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재학생들은 교육과정 개발의 주체로 중등 현장의 가정과교사와 재학생 자신들을 지목하면서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발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학의 내용을 전공한 교수는 가르치는 내용분야의 전문가이지, 교육과정이나 교수이론 전문가는 아니다.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의 대학에서 그 명칭은 다양하지만 “교수개발 센터(faculty development center)”를 운영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대부분의 교수개발 센터에서는 교육과정의 개발과 교수법 등에 대한 교수자신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Candy, 1997). 유럽의 대학이나 한국 및 일본의 대학 등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용어가 “소비자 중심”이라는 말이다. 지금까지 대학은 소비자가 누구이던 그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공급자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피교육자인 학생들은 교육의 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이지만 교수와 평등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을 요구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대학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일 것이다(Galluzzo, 1990; Sandefur, 1970). 유

<표 16> 교육과정개발 주체에 대한 개혁요구

대 상	현 재		미 래	
	N(%)	순 위	N(%)	순 위
교육전문가 (가정교육학 박사학위소지자)	81(28.4)	1	41(14.4)	3
대학의 교수	65(22.8)	3	27( 9.5)	4
현장의 가정과교사	39(13.7)	4	117(41.2)	1
학부모	3( 1.1)	7	7( 2.5)	5
교육부 상급관리자	69(24.2)	2	5( 1.8)	7
교육 단체	7( 2.5)	6	6( 2.1)	6
가정교육과 재학생	19( 6.7)	5	81(28.5)	2
기 타	2( 0.7)	8	0	8
합 계	285(100)		284(100)	

립의 대학과 같이 교수와 학생이 대면해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튜터리얼 시스템에 있어서는 교수는 학생의 요구를 항상 현시점에서 파악하고 교육적 처치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학에서와 같이 대체로 다인수 학급에서 강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학생들의 요구를 교육에 반영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내용을 구안하는 단계에서 학생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전성연, 1999).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사범대 가정교육과의 교사교육과정을 재학생을 대상으로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질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데 있다.

본 연구결과를 TQM을 구성하는 전문적 자질, 만족도, 리더십, 임파워먼트, 지속적 개선을 위한 교육요구 등 요소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과교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는 가정교육에 대한 열정,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과교과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 가정교과 관련 계발활동 지도능력, 컴퓨터 활용능력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는 교과신념 영역 성취도가 가장 높았고, 활용능력의 성취도가 가장 낮았다.

둘째, 재학 만족도의 경우 평균이 5점 만점에서 3.15로 중간정도의 수준이었다. 본인의사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보다 재학 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리더십에 대해서 교사교육자가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을 취한다고 인식하였다. 재학만족도가 높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재학생일수록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이 높았다.

넷째,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보면 전

체 평균 3.52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 그렇지 않은 재학생보다 높았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개선을 위한 교육요구에 대해서 재학생은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은 중등현장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하였으며,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교수방법의 혁신을 들고 있었다. 교수법 가운데에서는 실험·실습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수에 있어서는 교과내용학을 우선 충실하게 이수한 후에 교과교육학을 이수하는데 부족하게 이수한 교과교육학은 현장에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가정과교사 교육과정 개발 주체는 현장의 가정과교사와 재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위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는 중등학교 가정과교사를 양성하기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TQM으로 평가한 우리나라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우리나라에 있는 가정교육과는 가정과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성취시키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교과지식보다는 교과지식 내용을 현장에서 알맞게 적용시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능력을 길러주기에 많이 미흡하였다.

둘째,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에서 변혁적 리더십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재학생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에서 가정과교사로서의 실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원하고 있으며, 교사교육자 중심의 일제식 수업에서 벗어난 교육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수법을 활용하는 등 교수법에 있어서의 개혁을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다.

이상과 같이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의 TQM은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변혁적 리더십 수준과 재학만족도, 임파워먼트 등에서도 중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대학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일로써, 가정교육과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에도 재학생을 투입하여서 요구를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범대학 교육과정은 사범대학 고유의 교육목적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과목과 내용으로 편성·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정교육과 교사교육과정은 가정과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 함양을 위한 교육목표 설정, 다양한 교과목 개설, 가정교과교육 전공교수 배치 등의 실현을 통하여 일반대학과 차별화된 교육과정 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교육학의 방향과 사명감 등의 철학을 확고히 할 것이 요구된다. 교과목 개설에 있어서는 방법지식을 위한 교과목을 늘리고 교과교육학 교과목 개설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가정과교사교육자들은 전통적으로 가정교육과가 강조해온 목표나 내용을 진리처럼 따라서 할 것이 아니라 재학생들의 가정교육에 대한 열의와 사기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을 재구성하고 중등학교 새 교육과정에 맞게 창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재학생은 교과에 대한 신념이나 열정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비전의 성취도가 낮아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정교육과 학생으로서 만족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교육 전공을 공부하는 데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범대학에서 복수전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타 전공을 이수하기 위한 발판으로 가정교육을 선택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가정교육과의 미래는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가정교육과에서는 가정과교사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가칭학철학 정립에 힘써야 할 것이고, 가정교육관련 세미나 개최나 적극적인 홍보 등으로 타교과로의 이동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재학생들의 임파워먼트 수준을 높이고 재학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가정과교사로서의 전문적 자질을 잘 갖춘 예비 가정과교사를 양성할 수 있으므로, 가정과교사교육자는 변혁적 리더십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리더십은 이제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덕목으로서가 아니라 민주화된 시대의 교육적 본질을 추구하는 의미로 재검토되어야 하며, 오늘날

많은 대학들이 대학개혁의 중요한 핵심요소 중의 하나로 리더십을 들고 있다. 교사교육자의 리더십 부족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나타난 결과이다. 대학교육에 있어 피교육자인 학생들은 교육의 질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들이지만 교수와 평등한 관계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질 좋은 교육을 요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교사교육자가 먼저 가정교육학의 방향과 목표를 내면화하고 재학생으로 하여금 미래 가정과교육자로서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가 있으리라 본다. 가정과교사교육자는 이론위주의 지식전달 강의 외에 다양한 교수법 도입과 변혁적 리더십 역량 강화, 중등학교 가정교과에 대한 정보 획득 노력, 중등학교 현장 경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신복(1996). 사범대학 체육교육과의 교육과정 개선방향. **체육연구**, 1(9), 9-19.
- \_\_\_\_\_(1998). **중학교 체육교사의 수업지식과 교수활동의 관계분석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보고서.
- 강철희(2001).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영향요인 및 임파워먼트 제고과정에 대한 탐색, **한국사회복지행정과 임파워먼트.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2001년 추계학술대회 및 Workshop**, 35-61.
- 광영순(2002). 예비교사들을 통해 알아본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과제: 학생들의 변하지 않는 신념들. **한국지구과학회지**, 23(4), 309-324.
- 권동택(2002). 초등학교교육 효과성과 총체적 질 관리 통합 모형 개발연구. **초등 교육연구**, 15(2), 1-18.
- 김두성(1997). **학교조직의 총체적 질 관리 모형개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정은애(2005). 의화도서관의 총체적 질 관리 요인분석.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 36(2), 307-325.
- 김유정(2004). **중등학교 가정과교사의 교사 효능감 유형과 관련 변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숙(2003). 교원 '전문성'과 '질'의 개념 및 개선전략 탐색. **교육학연구**, 41(2), 93-114.

- 김혜진(2004). 사회복지사가 지각한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사회복지사의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숙(2005). 칭찬, 아이도 춤추게 한다. *교육연구*, 25(6), 13-26.
- 박미정(2006). 가정교육의 미래 발전 전략 탐색: 정체성과 임파워먼트 및 비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문(2002). 교사교육의 신방향. 충북대학교 교육생활연구소. *교육연구논총*, 23(3), 1-20.
- 손영민(2001). 지식기반 사회의 교사교육을 위한 PDS. *교육사회학연구*, 11(2), 77-100.
- 손충기(2004). 사범대학 교육과정 편성·운영방법 개발을 위한 교사의 요구 분석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251-271.
- 신은아(2005). 초등학교 교사가 지각한 학교장의 변혁적 리더십과 교사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용(2003). 교사양성대학 수학교육과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2(4), 431-452.
- 이성호(2004). *교육과정 개발과 평가*. 서울: 양서원.
- 이용탁(2004).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과의 관계에 임파워먼트가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46, 2139-2160.
- 장명희(2001). *중등학교 가정과 교사의 교수 능력에 대한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재문(2004). *학교 조직문화와 교사 임파워먼트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벽(2005). *나는 대한민국의 교사다*. 서울: 해냄출판사.
- 최유정(2006). 가정과교사의 교육과정 관점과 교사 효능감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성철(2003). 임파워먼트 모델과 사회복지조직 관리.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6, 65-90.
- Arcaro, J. S.(1995b). *Quality in Education an Implementation Handbook*. Delray Beach, FL: St. Lucie Press.
- Corrigan, J. P.(1996). The Art of TQM. *Quality Progress*, July, 61-63.
- Galluzzo, G. R. & Craig, J. R.(1990). Evaluation of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s. *In Handbook of Research on Teacher Education*, N.Y.: MacMillan, Pub. Co., 599-614.
- Johnson, M. F.(1999). Why firms seek ISO 9000 certification: Regularity compliance or competitive advantage. *Production and Operations Management*, 8(1), 28-43.
- Juran, J. M.(1994). The Upcoming Century of Quality. *Quality Progress*, August, 25-29.
- Witkin, B. R. & Altschuld, J. W.(1995). *Planning and Conducting Needs Assessments*. Co. by Sage Publications, Inc.
- Witkin, B. R.(1984). *Assessing Needs in Educational and Social Programs*.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 <국문요약>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사범대 가정교육과 교사교육을 TQM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하여 TQM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여 가정교육학의 미래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설문조사 대상은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사범대학 가정교육과를 방문(3개교)하거나 우편발송(10개교)하여 총 342부 가운데 302부(88.3%)를 회수하고 285부(83.3%)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나온 본 연구의 결과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정과교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게 된 가정과교사의 전문적 자질 성취도를 보면, 가정교육에 대한 열정, 가정과교사로서의 긍지와 사명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가정교과에 대한 미래비전 제시, 가정교과 관련 특별활동 지도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만족도의 경우 평균 3.15로 나타났는데 본인의사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성적이나 기타 사유로 입학한 경우와 재입학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교육자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거래적 리더십보다 변혁적 리더십을 취한다고 인식하였다. 재학만족도가 높고 재입학을 희망하는 재학생일수록 가정과교사교육자에 대한 리더십 인식 수준이 높았다.

가정교육과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평균 3.52로 중간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재학생의 임파워먼트 수준은 가정교육 전공교수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 그렇지 않은 재학생보다 높았다.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개혁을 위한 일반적인 요구를 사정한 결과, 가정과교사 교육과정은 중등현장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교수방법의 혁신을 들고 있었다. 교수법 가운데에서는 실험·실습수업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수에 있어서는 교과내용학을 우선 충실 이수를 한 뒤 부족한 교과교육학은 현장에서 연구과정을 개설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대학의 가정과교사 교육과정 개발 주체는 현장의 가정과교사와 재학생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추후 가정과교육에 TQM을 어떻게 도입하여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공급자 중심에서의 평가 연구, 내러티브 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의 활성화를 제안한다.

■ 논문접수일자: 2008년 7월 28일, 논문심사일자: 2008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자: 2008년 9월 5일